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2호 【루계 제25425호】 주체105(2016)년 10월 8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향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어머니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9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영원한 수령의 당, 일심단결의 순결체,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면모는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전백승을 떨쳐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가장 빛나는 장을 펼치시고 반세기를 헤아리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영구불멸한 업적으로 하여 지금으로부터 19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날이 있어 우리 당은 세기를 이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끝없이 빛을 뿌릴수 있었고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중책을 지니신 나날은 우리 혁명앞에 최악의 역경이 겹쌓인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시기였다. 력사의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여 김일성주의를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전당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사상과 행동의 통일체, 선군혁명동지의 대부대, 최정예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이 그처럼 엄혹한 시련과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순결해지고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을 건설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과 같이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존함으로 백전백승을 떨쳐나가는 위대한 당은 이 세상에 없다.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고 그 완성을 위한 억년기틀을 다져놓으시여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당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의지대로, 장군님식대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 수반으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나가게 하는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 영광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는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실현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생명선이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령도에서 기본을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 김일성주의화로선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신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계승하시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리론을 비롯한 새로운 사상리론들로 발전풍부화하시고 당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체계원칙을 철저히 세워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에 의하여 전당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로 억세여지게 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수령의 령도적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전당에 나래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기에 우리 당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가장 공고한 조직적진일체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게지어 원수님의 두리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벽의 성새로 세워주신 수백만 로동당원들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끝까지 같이하며 원수님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위용떨치게 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원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립성상 우리 당을 이끄시면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새로운 주체100년대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을 공고한 대중적지반과 강력한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초석이다.

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무적의 용대를 틀어쥐는데 있다. 력사는 대중적지반, 군사적지반이 없는 당은 정치적풍파와 시련앞에서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좌우명이였으며 선군은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주체의 사상론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시고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우리 당력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며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 주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방식은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격변하는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우리 당의 정치군사적지반이 철통같이 다져져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의 위력,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뜻깊은 올해를 세계를 진감시키는 특대사변들로 빛내이며 북부전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전변시키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당의 대중적지반, 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는것은 위대한 인민이며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이다. 오늘 당중앙을 천겹만겹의 천연요새가 되여 결사보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투쟁의 앞장에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인 불패의 당군이 서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틀어 키우신 훌륭한 우리 인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백두산혁명강군이 당의 사상과 위업을 믿음직하게 떠받들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승을 떨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 령도자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고 령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빛나게 계승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장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천백하게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선군령도의 길을 함께 이어가시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모신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과 조국과 인민의 영원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확고히 계승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쌓아올리신 또 하나의 특출한 공적은 청년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신것이다. 일찍부터 청년문제해결을 당의 전도와 직결되여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청년사업,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청년동맹을 수령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여주시고 청년들에게 혁명의 횃불봉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하여 우리의 수백만 청년대군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다.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당은 반사회주의역풍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전도양양한 당,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백두산청년강국으로 더 높이 솟아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있고 당중앙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의 대부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있기에 우리 당은 앞으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빛내여나가는것은 당의 혁명적성격과 명맥을 고수하고 령도적역할과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 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장군님의 유훈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주체의 당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 뛰어난 자질과 품격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져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정의 20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오늘의 투쟁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심단결옹위전이며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 맥박치는 당의 호소에 심장의 피를 팔팔 끓이며 앙양된 기세를 순간도 늦춤이 없이 북부전역에서 만리마속도,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여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내달려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힘있게 떨치며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앞장에서 안아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북부피해복구전선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여 피해지역을 하루빨리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며 증산투쟁, 창조투쟁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 200일전투의 전역에서 대비약적혁신이 이룩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공세를 더욱 힘있게 들이대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뼈와 살에 새기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사업전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당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참신하고 기백있게 해나가야 한다.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천만군민을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수백만 청년들을 당의 척후대, 후비대, 익측부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친근한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체 일군들,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형제적이고 동지적인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 그리고 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71년간 형제적조선인민은 주체사상과 선군로선의 빛발따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용맹하고 과감한 투쟁을 벌려왔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정치적안정을 보장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을 끊임없이 전면적으로 이룩하였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나는 형제적조선인민이 지난 기간 이룩한 모든 위대한 성과들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형제적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관철하여 조국을 보위하고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을 건설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새로운 커다란 성과들을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두 나라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 협조관계발전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발전되여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숭고한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들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냥 워 라 찟

2016년 10월 6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애모스 엘리샤 주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정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7일 주조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만마인사들이 1일과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미트 라르보출판사 총사장 마옹 마옹 나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선군정치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함으로써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아왔다.

김정일각하의 존함은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린 룬은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세계혁명운동사를 돌이켜보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있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이 있기에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을 맞으며 주체의 선군태양을 영원한 수반으로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영광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거장, 백두의 천출위인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이였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완성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와 변혁을 아로새겨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위업실현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신뢰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으며 조선로동당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 19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새롭게 합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을 비롯한 군대와 사회의 모범적인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으며 어버이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장군님의 혁명령도사, 주체적당건설력사는 영원불멸하리라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온 누리에 성스러운 그 이름 유난히도 빛난다.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용히 그 이름 불러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 왜 그리도 끝없는 긍지로 부풀어오르는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성스러운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있기때문이 아니랴.

우리 당력사의 뜻깊은 날인 10월 8일을 맞이한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 하많은 사연들을 더듬어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세계에는 력사를 자랑하는 당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수령의 혁명력사로 영광넘치고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강화발전되여온 그렇듯 존엄높은 당의 력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며칠 앞둔 주체101(2012)년 4월 6일에 있은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뜻깊은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활동력사, 새길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당령도사가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우리 당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력사의 첫 기슭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얼마나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셨던가.

장장 수십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충효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혁명적당건설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승리만을 떨치였다.

당의 위대함은 엄혹한 시련속에서 더욱 검증되는 법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헤여나기 힘든 력사의 시련속에서 천만군민을 일으켜세우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서는 길에서 우리는 당의 위대함을 절감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를 발표하시여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긍지를 주시고 도덕의리의 승엄한 세계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찬 진군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발표된 력사적로작들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해준 기치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수령님식대로 해나가도록 이끄시고 주체의 위업, 수령님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로 지향시키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더불어 만천하에 과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영원한 수령의 당으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인민을 위한 위대한 한생

조선로동당의 당풍인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오늘의 만리마시대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들마다에,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공장들과 황금물결 설레이는 농장벌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나래치는 멸사복무정신.

하다면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줄곧 떠밀어주는 위대한 유산인 이 시대정신의 창조자는 과연 어느분이시였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주체91(2002)년 10월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안주지구에 현대적인 소목장을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해 또 한가지 새것을 마련해주게 된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저리도 만족해하시랴 하는 생각을 하며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부디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께서는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다고,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는것이 너무도 안타깝기때문이라고 자신의 마음속진정을 터놓으시였다.

로동과 휴식은 떼여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히려 시간이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니 더더욱 뜨거워만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일군은 또다시 그이의 건강을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이전 수령들은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정력과 헌신에도 한계는 있었다.

밤새워 일하고나면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다분 몇시간씩의 휴식시간도 있었고 하루 두세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한 나날은 한생에 몇번이였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식사시간마저도 아까우시여 길가에서 한덩이 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달리는 차안에서 폭잠으로 쌓이고쌓인 피로를 푸시며 끝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보면 혁명할 각오가 더욱 불타오른다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이런 강행군길을 계속 옷으며 걷겠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길은 몇천몇만리였던가.

하기에 그처럼 만나뵙고싶었던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도 마음속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뇌이던 《장군님, 또 오십시오.》라는 말을 깊은 죄의식속에 묻어두군 하였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시간도 정력도 바치고 또 바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신 어버이장군님,

진정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헌신의 한생이였고 위대한 생애의 한초한초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순간순간이였다.

본사기자 강원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기념 총련교육일군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일본 도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기념 총련교육일군대회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천하에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리는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기념 총련교육일군대회에 즈음하여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는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배워주고싶어하던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념원이 실현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애국인재들로 튼튼히 키워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지난 기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가혹한 탄압과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도 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쟁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였으며 새 세대들을 조국과 민족에게 참답게 이바지하는 열렬한 애국자,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움으로써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국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세워놓고 동포자녀들을 애국위업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워가는 총련과 같은 해외동포조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민족교육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일본땅 곳곳에 조선학교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총련일군들과 각급 학교 교직원, 동포하부모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총련애국위업의 백년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충효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민족교육사업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교육기관들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지식경제시대와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조직들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애국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며 각급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기념 총련교육일군대회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민족교육사업전반에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교육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는 력사적인 대회로 빛나게 장식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사업에서의 성과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105(2016)년 10월 7일 평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를 타고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을 창조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웅적위훈을 아로새겨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을 우리 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반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을 이끄시여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와 거창한 변혁을 안아오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에서 오래동안 내려오던 낡은 틀이 타파되고 당의 조직건설과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면모가 일신되고 사회주의위업실현의 만년토대가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령도하여오신 불멸의 력사와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혁명적당건설의 거장으로, 희세의 정치원로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며 장군님의 존함과 영상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인민들의 심장속에 길이 간직되여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이 끝없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명시하여주신 우리 당의 최고뇌수, 사상리론의 거장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당건설과 무력건설, 국가건설과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건설의 근본원리로부터 당사업체계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게 한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들이 심각한 사상적혼란과 로선상오유로 좌절의 운명을 면치 못할 때에도 자기의 옳바른 지도사상과 정치리념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교시와 모든 사상리론은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멸의 지침이며 이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적재부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 어떤 시대적과제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탁월한 건설자이십니다.

우리 당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말그대로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였습니다.

이 력사적과제를 한몸에 지니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당건설의 총적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적인 당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전체 당원들을 **김일성**주의정수분자로 만들고 당사업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건일체로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당과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자랑떨칠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 의하여 수령의 권위와 업적이 훼손말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집권당이 어지없이 붕괴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진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우리 당을 참다운 수령의 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혁명적대강을 밝혀주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오신것이 얼마나 현명하였는가를 뚜렷이 반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공고한 대중적지반과 강력한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조선로동당의 절출한 령도자,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십니다.

혁명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당을 진두에서 이끄는 수령의 선견지명과 령도의 현명성은 혁명위업완성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게 됩니다.

당과 혁명의 운명과 그 전도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내다보시고 모든 문제를 예견성있게 전개하여오시였으며 당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만리마시대의 벅찬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귀한 한생과 맞바꾸어 마련하여놓으신 튼튼한 정치군사적, 경제적토대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당과 혁명앞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사상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을 당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습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된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길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그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우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활력있고 희망찬 주체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시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조국수호의 전구들을 찾고찾으시여 무적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적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영웅적전투정신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랑랑 나는 싸움군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을 자체의 힘으로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강위력한 자립적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입니다.

우리 인민이 미제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속에서도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의 덕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여 자립적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우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났으며 조국의 무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과학기술중시로선이 철저히 구현되여 우리의 과학기술이 첨단의 요새를 돌파해나가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며 교육과 보건, 체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문명강국의 래일을 예고하는 눈부신 성과들이 창조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펼치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력사적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나긴 세월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전투적기치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이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달리는 만리마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키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는 절대불변이며 장군님의 혁명령도사, 주체적당건설력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흐르게 되리라는것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철석의 신념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교시와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오직 장군님대로 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두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을 보다 철저히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국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강조국건설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차고도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뼈속깊이 체질화하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자랑스러운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의 군대,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으로 다지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 나라의 방위력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전인민적인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강국과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령마루에 기어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감으로써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만리마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여 조국의 북변땅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며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백승의 지침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린 주체의 붉은 당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정 론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전화위복의 기적이 펼쳐지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숨결을 전한다

1

온 나라가 모여왔다. 북부전선에로 향한 마음들이 렬차로, 자동차로, 배길로 끝없이 이어지는 북행길을 따라 우리도 꼬박 하루낮, 하루밤을 달리였다. 재해소식에 접한 순간부터 안타까이 타들던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이 아니였던가.

외우기조차 가슴찢기는 참혹한 재앙이였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무서운 재난을 몰아왔다. 큰물에 산이 깎이여 절벽이 되고 사태에 거대한 골짜기가 통채로 메워졌다. 살림집들이 무너져내리고 기름진 논밭들이 자갈밭으로 변하였으며 동구길이 강줄기로 바뀌였다. 전력과 통신이 단절되고 철도와 도로가 끊어진 참담한 현실, 어쩔새없이 들이닥친 큰물에 혈육과 동지들을 잃은 아픔은 또 얼마나 가슴미여지는것이였던가.

하지만 우리앞에 펼쳐진 광경, 이 시각 세계가 바라보는 조선의 북부지역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있는가.

재해가 언제나싶게 이른아침부터 앞서거니뒤서거니 복구전투장으로 몰려쳐가는 사람들, 누구나 환기에 차있고 신심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는 악동의 기상, 쉼없이 전해지는 복구소식들과 새로 솟는 희한한 살림집이야기들이 차고넘친다.

재난의 이야기는 벌써 지나간 옛일처럼 되였다. 끊어졌던 도로들이 번듯하게 이어지고 복구된 철길을 따라 증송의 기적소리가 가슴후련하게 울린다. 피해를 입었던 변전소들과 수백리 구간의 송전선들이 성과적으로 복구되고 큰물피해를 가신 무산의 철산봉에서는 증산의 숨결이 나래친다. 온 나라 곳곳에서 모여온 건설의 대군이 여기저기 진을 치고 우렁찬 동음과 힘있는 함성들로 용암처럼 끓어번진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렬한 복구전선의 최전방은 살림집건설장들이다.

유서깊은 희령땅을 감돌아흐르는 희령천기슭의 전투장, 근 1,000세대의 소층살림집들이 한꺼번에 일떠서는 여기서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고 위훈이다. 기초를 파던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살림집들이 자태를 드러내고 드넓은 주택지구가 즐비하게 형성되고있다. 붉은기가 건설장을 통채로 뒤덮고 현장방송소리가 포성마냥 울린다. 하루가 아니라 시간마다 다르게 전변되는 이곳, 마치도 땅을 차며 불쑥불쑥 솟구치는것만 같은 건설장은 희령땅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무산과 연사, 온성과 경원, 경흥을 비롯한 피해복구전선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의 열풍이 세차게 휩쓸고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이 새 모습을 드러내며 시시각각 다투어 솟아난다.

전쟁이다! 나라의 한끝에 요란한 대격전이 터졌다.

여기서는 한마디 웨침, 하나의 호각소리, 기계화군단의 무쇠발굽소리도 적진을 들부시는 요란한 총포성처럼 심장을 울린다.

우리는 격동하는 이 시대의 창조의 전장들을 수없이 밟아보았다.

그러나 여기 북부전선처럼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이 총동원되고 전체 인민의 정신력이 최절정에로 앙양된 이렇듯 거세찬 전장, 거대한 전선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펼친 북부전선은 그 규모에 있어서 라선전역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거창한 대전선이다.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정예대군이 급파되여왔다. 려명거리건설장과 세포등관, 백두전구를 비롯한 200일전투의 주요전선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하던 그 차림새, 그 걸음새로 달려왔다. 전국의 일터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위한 증산의 열풍으로 들끓고 나라의 모든 힘이 줄기차게 흘러든다.

온성군 남양로동자구의 살림집건설장에서 우리와 만난 녀인들은 말하였다.

《글쎄 우리가 뭐라고 려명거리건설까지 중지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꿈만 같습니다. …》

피해지역 인민들 누구나 제일먼저 터놓는 이 말, 그렇게 시작하였다가는 북받치는 격정에 말끝을 맺지 못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하는 첫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는 전심의 토로,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피해복구전투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 호소문의 구절에서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올랐다는 사연들이 취재수첩에 새겨질 때 우리 눈시울도 뜨겁게 젖어들었다.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뿐이다. 여기서는 진짜전쟁이 벌어지고있다.

열백밤을 지새워도 다 말하지 못할 불같은 그 낮과 밤의 갈피에 새겨진 구절명의 위훈담이 있다.

회령시에 급파되여 강행군을 다그치던 군인들의 대오가 일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끊어진 도로, 앞길을 막아나선 두만강물결, 옆에는 아아한 절벽… 걸심은 단호했다. 병사들은 주저를 몰랐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전설자재와 공구들을 들리메고 곧바로 산길에 들어섰다. 깊은 골짜기를 따라 렁마루를 에도는 그 시간도 아까와 아찔한 산비탈을 가로질렀다. 발을 딛기조차 힘든 경사급한 산비탈, 미끄럽고 가파로운 그곳에 길 아닌 길을 내며 수십kg의 짐을 지고 한치한치 톺아오르던 지휘관들과 군인들, 녀병사들… 그들을 이끄는 장령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어리고 함께 령을 넘는 우리도 목이 메여올랐다. 과연 이들이 남전의 길에서 산악도 격랑도 단숨에 극복하던 전화의 용사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렇게 이어진 행렬들이 아찔한 령을 넘어섰고 거기서 목적지까지는 또다시 수십리, 기동로가 파괴된 피해지역에 인민군대가 진입하던 그 순간 모두가 떨쳐나 눈물속에 맞이하는 인민들의 모습은 창일의 나날 사선을 헤치며 조국으로 진군해온 유격대를 맞이하던 인민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이런 강행군으로 전투현장에 다달은 군인들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세월의 눈비속에 그 자욱들은 지워질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펼친 이 사랑의 전쟁과 함께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병사들의 자욱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으리라.

정녕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장을 주름잡는 우리 인민군대이다. 시간과의 격전이 분과 초를 다투며 벌어진다.

행군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숙소건설이 아니라 복구전투에 달라붙은 병사들, 다음날에는 기초공사에 쓸 거대한 돌무지들이 여기저기에 솟아나고 그다음에는 난데없는 블로크바다가 생겨났다.

밤이면 온 건설장에 눈부신 불야경이 펼쳐진다. 블로크찍기가 한창인 무산군의 성천수기슭을 밝히던 불의 바다가 며칠후에는 읍지구의 돌력진 곳에도 펼쳐졌다. 밤을 모르는 격전속에서 단 3일사이에 기초가 앉고 련이어 벽체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벌써 살림집의 골조가 드러나고 넓은 구획의 전모가 뚜렷해졌다. 순간순간이 전투이고 하나하나의 성과가 전승의 신화와도 같다.

전쟁만큼 생사를 갈이하는 전우들의 열과 정이 최대로 분출하는 때는 없다. 세기를 이어 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지고 굳건해진 군민의 정, 군민대단결의 힘이 북부전역에서 어떻게 총폭발하고있는가를 보라.

하루에 한가지씩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자! 이것이 온종일 철야전투를 벌리는 군인들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내린 량심의 명령이다. 인민들이 다리가 파괴된 개울로 다니기 힘들어한다는것을 알고 밤사이에 든든한 돌다리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의 식량을 덜어 해산한지 3일만에 집을 잃은 산모에게 안겨줄 때, 인민군대에서 보내온 수천세대분의 지원물자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겨질 때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터져오른것은 우리 원수님의 군대가 제일이라는 격정의 분출이였다.

물과 공기, 이 말은 지금 북부전선에서 인민군대를 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입에 올리는 말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어 정녕 물과 공기밖에 모르는 우리 군인들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집에서 식칼과 물통을 빌려쓴 병사를 데리고 주인을 찾아가 사죄했다는 정치일군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성의껏 마련한 에스키모를 안고 건설장을 찾아간 희령녀인의 사연은 또 얼마나 가슴을 치는가. 무턱대고 절대로 받을수 없다고 사양하는 군인들에게 그는 눈물에 젖어 웨치다싶이 말하였다.

《인민군대는 물과 공기는 마신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도 녹으면 물이 되는데 안되긴 왜 안된단 말인가!》

그랬다. 그것은 이 세상 가장 뜨거운 물이였다. 가장 맑은 진정의 샘이였다.

물도 공기도 그렇듯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있는 전선이여서 분과 초를 다투며 눈부신 전화위복의 대승리가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자연의 광란이 몰아온 재난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엄혹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처없이 헤매는 피난민이나 절망에 잠겨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없다. 엄마를 잃고 애처롭게 울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참한 광경도 찾아볼수 없다.

배움의 종소리는 오히려 더 랑랑하게 울리고 그전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멋있고 요란한 보금자리들이 땅을 차고 솟구치는 희한한 화복이 펼쳐지고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전화위복,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은 이 승리의 좌표를 향하여 욱박하는 거대한 화살표이다.

화와 복, 이는 불과 불처럼 한데 어울릴수 없는 랑극단의 언어이다. 전화위복은 하늘과 땅이 바뀌였다는 말처럼 기적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다면 이 땅에서는 어찌하여 자연의 재앙이 들이닥칠 때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그처럼 례사롭게, 스스럼없이 울리는것인가.

당이 멸사복무하면 인민에게는 행복과 영광만이 있다.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은 우리 당기발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나붓기는 한 이 땅에 자연의 광란은 있어도 쓰라린 고통과 불행이란 없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또 하나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나라의 한끝에 사는 인민들이 입은 상처를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는 불같은 진정, 피해입은 인민들에게 잃어버린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하며 풍만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나라의 재부도 통채로 쏟아부을 대용단을 내린 우리 당의 사랑이 재난이 휩쓴 땅우에 전화위복의 현실을 안아올리고있다.

조선의 전화위복!

세계가 알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의 모습,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내 조국의 필승불패성이 여기에 함축되여있다.

우리가 말하는 전화위복은 단순히 자연의 재해를 가시고 새 마을을 일떠세운다는, 슬픔을 밀어낸 행복의 크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 혁명과 인민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가.

바로 자연의 재해를 가시는 복구투쟁을 통하여 조선의 힘이 더욱 커지고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조국의 전진속도가 더욱 비상히 빨라진다는데 있다.

혹심한 인적, 물적피해를 입은 나라가 혁명의 저조기나 침체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조기를 맞는 이런 실례는 지구상 어디에도 있어보지 못하였다.

북부전선에 굽이치는 민심의 거세찬 고조를 보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는 든든한 배심,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땅 끝까지 따르는 길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말이 아니라 죽어도 잊지 못할 인생체험으로 간직한 인민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현실을 낳는가를 세상은 보고있다.

파괴된 철도복구전투장에서 가슴을 치는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방틀을 세운 용감한 수송전사들과 끊어진 도로를 잇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는 격전을 벌린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철야질사전으로 망양나루혁명사적지를 눈부시게 꾸린 인민군군인들과 희령시의 녀맹원들, 인민군대와 돌격대원들을 위해 스스로 짐운반에 나선 수많은 《락동강할아버지》들과 살림집건설에 불심량면을 아낌없이 바치는 오늘의 《금강의 세동서》들…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해지고 당을 따르는 인민의 신념이 철통같이 다져졌다. 자연의 재앙은 무섭게 휩쓸었지만 조국의 승전은 더욱 높아지고 지금껏 달려온 200일전투의 전진속도가 날을 따라 빨라지고있다.

북부전선, 이것은 결코 하나의 전선, 하나의 지역의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 나라가 전선이 되였다. 상원과 순천, 강선과 김철을 비롯한 조국땅 방방곡곡 전투장들의 숨결이 북부전선과 잇닿아있다. 항만과 철도, 탄광과 경공업공장들에서 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누구나 북부전선의 기적적승리에 이바지할 위훈으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심장을 불태운다.

시련이 전진의 장애물이 아니라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는 이 땅, 재해의 후과를 급속도로 가시며 혁명의 전만적형세가 새로운 앙양에로 치닫고있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이 이끄는 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여준다.

북부전선의 숨결은 힘있게 웨치고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휩쓴다 해도 이 땅우에서는 일심단결의 대하가 더욱 거세차게 흐를것이며 무한대한 그 힘에 의거하여 조선은 강성번영의 작전도우에 새로운 승리의 화살표들을 가슴후련하게 그어나갈것이다!

2

재난의 검은구름이 드리웠던 피해지역에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태양의 하늘이다!

라선땅에 이어 솟아날 수많은 《만복동》들이 벌써부터 눈앞에 어려오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심장에 새긴 가장 강렬한 충격은 무엇인가.

머나먼 조국의 북변에서 사회주의수호의 기치를 들고 누구보다 억세게 살며 투쟁해온 함북의 인민들이다. 그처럼 강의하고 락천적인 사람들이 이처럼 눈물이 많을줄은 몰랐다.

처절한 재난을 당했을 때에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들, 무너져내린 제 집자리를 찾을새없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복구에 떨쳐나섰던 이곳 인민들을 마주하고보면 하나같이 눈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사람들이였다.

이 하늘아래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온 피해지역이 처음으로 눈물바다로 변하였던 그날의 이야기는 격정없이는 들을수 없는 사랑과 정의 화폭이였다.

범람하던 큰물이 채 꺾지 않았던 그날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철길도 도로도 전기도 통신도 단절된 피해지역 상공으로 직승기가 날아들었다.

온빛동체 번쩍이는 직승기를 보는 순간 삽시에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평양에서 오는 직승기다!》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직승기가 날아온다!》

물속에 포위된 아빠트의 창가마다에서, 사람들이 대피해 올라간 산등성이의 림시숙소며 직승기가 지나가는 곳마다에서 터져오른 만세소리, 만세소리…

대홍수가 지나간 땅에 격동의 《해일》이 일었다.

우리는 그날 직승기가 내렸던 무산역광장에서 당시의 체험자들도 만나보았다. 세찬 회오리를 일으키며 지공비행하는 직승기를 따라 환호를 올리며 물목을 돌고 담장을 뛰여넘으며 달리던 인민들이 역전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그날의 광경, 직승기에서 내린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서빨리 가보라고 자기들을 떠밀어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걱정으로 침식을 잊고계신다고 웨치다싶이 목소리를 터치는 순간 온 광장이 흐느낌으로 가득찼다.

원수님께서 우리때문에 침식을 잊고 계시다니?!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한끼도 건느지 않고 밤술을 떴으니 이보다 더 큰 죄스러움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며 눈굽을 적시던 무산군 삼봉로동자구의 전쟁로병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다.

이제 반드시 화가 복으로 된다고, 그날을 굳게 믿고 오늘의 난관을 이겨내자는 일군의 호소에 또다시 우렁차게 터져오르던 만세의 함성이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다.

그날로부터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정이 대하되여 흘러들었던가.

끊어진 철길과 도로를 넘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어린 물자들이 도착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자마자 깊은 밤 무작정 마을로 달려갔다는 삼봉로동자구사무소 일군인 김정희동무, 그때를 회억하며 그는 말했다.

《언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릴 사이도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은정이 어린 물자들이 온다고 두만강기슭을 따라 달리며 웨치고 또 웨쳤습니다. 그 소리에 온 마을이 달려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기름기도는 흰쌀밥에 푸짐한 고기국을 마주했을 때 침식도 잊으시고 피해복구전투를 지휘하신 원수님 생각에 목이 메여 누구나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평범한 시절에는 다는 몰랐던 사실들, 언제나 메사롭게 공기처럼, 숨결처럼 대하며 살던것도 운명이 파우되는 시각에는 몇십, 몇백배의 충격으로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한결같은 고백, 그것은 영원히 떨어져 살수 없는 운명의 손길에 대한 귀중한 체험을 가르치고있었다.

오만자루 품을 아낌없이 바치며 자식을 위해 한생토록 자신을 불태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사람들은 운명의 손길이라 말해왔다. 그러나 처참한 대재앙속에서 그 어머니조차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였다.

피를 나눈 혈육들도 대신할수 없는 고귀한 운명의 손길, 그것은 바로 어머니당의 손길, 우리 원수님의 손길이였다.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이 땅에 생을 둔 인민이라면 마지막 한사람까지 따뜻이 품어주시는분, 더는 어쩔수 없는 죽음의 나락에 빠져든다 해도 천리길, 만리길을 달려와 기어이 품에 안아 행복의 언덕에 세워주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때엔 미처 다 몰랐다.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있고 얼마나 뜨거운 손길이 보살피고있었는지.

그 시각은 밤 9시경, 금방 큰물이 휩쓴 처절한 때에 수천리 먼곳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무어주시는 사랑이 전류를 타고 흘러들었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위가 오기 전까지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것이 기본이라고, 시간이 없다고, 살림집부터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신 우리 원수님,

마디마디에 피해입은 인민들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는 절절한 심정이 어리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세상에 들도 없는 금방석에 앉히실 철의 의지가 어린 그날의 음성…

인민에 대한 열화같고 끝없는 그 사랑속에서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거창한 대격전, 류례없는 사랑의 전쟁이 시작되고있었다.

그때로부터 피해지역의 실태와 인민들의 형편을 시시각각 료해하시며 복구전투를 진두지휘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피해복구전투를 위한 강력한 력량도 꾸려주시고 북부전선의 승리를 위해 취할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어머이의 손길은 피해지역에 일떠설 새 집들의 형성안으로부터 자연재해로 수업이 밀린 학생들의 교수진도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미쳤으니 우리의 원수님 바치신 심혈과 로고 그 얼마였으랴.

우리는 여기에 상원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을 용암처럼 끓게 한 또 하나의 사연을 전하게 된다.

북부전선의 승리를 위한 작전을 펼치시던 우리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린다.

함북도 어려 시, 군들이 큰물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살림집을 새로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상원로동계급에게 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생산을 부탁하였다는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에 온 상원땅이 격정과 맹세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인민!

진정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은 자신의 온넋이고 생의 전부이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그대로 그이의 기쁨이고 인민의 고통과 아픔이 곧 그이의 괴로움이다. 바로 인민은 그이의 사색과 실천, 사랑과 증오, 기쁨과 괴로움 그 모든것이 달려있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모시듯이 인민을 받드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을 위함이라면 심혼을 깡그리 바치시며 들우에도 꽃을 피우신다.

이렇듯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어버이로 모시였으니 인민들이여, 우리는 정녕 얼마나 행복한가.

그 품에 안기였기에 남들같으면 영영 솟아나지 못할 불행의 나락에 빠져들었던 재앙의 주인공들이 만복의 주인공들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가산을 다 잃은 부모들과 자식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아이들이 쓸 학습장과 필기도구, 바다에서 금방 건져낸것만 같은 신선한 물고기며 새 집에 바를 분양고운 도배종이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포근한 어린이용가을내의와 멋들어진 아동신발을 받아안고 철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 웃고 떠들 때 부모들의 가슴에서는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새라새로운 소식을 날마다 전해주는 인민반장들이였으니 철부지아이들이 인민반장을 멀리서 보기만 하여도 《인민반장 큰엄마가 또 온다!》고 들썩하게 소리친다는 그 이야기에도 웃음보다 눈물이 앞선다.

매일같이 안겨지며 겹쌓이는 사랑에 이제는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기조차 송구하다는 진심의 목소리들, 모어만 앉으면 새 집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벌써부터 우리 원수님 지어주시는 새 집을 어떻게 하면 정히 거룩가 하는 생각에 《근심》을 놓지 못한다는 사연들, 그 모든것을 다 합치면 크나큰 하나의 웨침이 울려나온다.

로동당 만세!

장장 70여년세월 천만자식들의 운명을 지켜 세상풍파를 다 이겨낸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살아온 인민만이 간직할수 있는 목숨같은 이 진리, 자연의 대재앙속에서 다시금 심장에 쪼아박으며 그리도 눈물겹게 꼭 잡은 운명의 손길이였다.

이 지구상에 이렇듯 고마운 손길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것은 우리 인민뿐이다. 설사 황금려미우에는 올라앉을수 있어도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 은혜로운 손길은 누구나 가질수 없다. 언제 어느때나 품어주고 지켜주는 고귀한 그 손길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우리 인민만이 누리는 행운이다.

그 손길따라 온 나라의 마음들이 달려오고있다.

전국각지에서 보내온 지원물자들이 산같이 쌓이고 일군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생활형편을 알아본다. 의료일군들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건강을 돌보아준다. 피해를 당한 첫날부터 줴기밥도 나누어들던 이웃들이며 한지에 나앉은 가족들의 소식도 알아볼 사이없이 피해주민들을 위해 뛰여다니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매일 저녁 일기예보시간이면 함북도의 날씨부터 알아보며 북행렬차에 마음을 싣던 많고많은 사람들, 이들은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이 나라 인민의 뜨거운 정을, 세상에 들도 없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름다운 풍려를.

그렇다. 여기서는 건축물만이 솟는것이 아니다. 조국의 북변에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성새, 사회주의의 억센 기둥이 더 높이 솟아올랐다.

억만년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큰물이 열백번 휩쓸어도 끄떡하지 않을 그 성새를 억척같이 떠받든것은 바로 인민의 믿음이다. 우리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불변의 일편단심이다.

얼마나 많은 참되고 아름다운 삶들이 그 성새밑에 보이지 않는 주추들로 간직되여있는것이던가.

범람하는 연변수를 건느다가 사나운 물살에 휘말려드는 순간까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모심함이 든 배낭끈을 꼭 부여잡았다는 김종길동무, 사랑하는 안해와 딸이 떠내려가는 때에조차 그는 손을 내밀지 못했다. 몸에 걸친 옷마저 찢겨져나가는 격류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억세게 틀어쥔 배낭끈을 끝끝내 놓지 않았다.

한주일후 수심리나 떨어진 곳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였을 때 이곳 종업원들은 피같은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습기 한점 배지 않은 20여상의 초상화, 한목숨마저 신념과 의리를 지킨 그 충정의 인간앞에 누구나 숙연히 머리숙였다.

영원히 기억하리라. 길길이 날뛰며 범람하는 두만강복판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를 지켜 사생결단의 격전을 벌린 류다섯 사람들의 4일간의 결사전을, 큰물을 피해 산으로 오르면 걸음을 스스로 돌려 안긴 혁명전적지에 모셔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한몸마저 보위해낸 참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는 길에 서슴없이 목숨을 내댄 희령시 송학고급중학교 10명 교원, 학생들의 최후를.

경원군당위원회의 일군은 말했다. 큰물을 피해 대피장소로 가는 1,000여명의 인민들, 그들속에 가산을 들고 나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만을 정히 품어안고 걸어가는 그들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이런 인민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는 그 심중을 글로써야 어찌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결코 우리만이 알고 체험한것이 아니다.

사품치며 밀려드는 큰물을 피해 나무에 오른 온성군 고성협동농장의 3명의 청년작업반원들,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서로 교대해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모심함을 목숨처럼 부여안고 29시간을 꿋꿋이 이겨낸 그 순결하고 강의한 신념앞에 외국인들조차 엄지손가락을 내들었다.

믿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만 있으면 잃어버린 집도 생기고 폐허가 된 공장도 다시 일떠세울수 있다, 그 품에만 안기면 그 어떤 재난속에서도 살아날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지닐수 있다는 절대불변의 믿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사기로에서 기도부터 드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다르다.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조차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우러르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믿음은 세상에 오직 하나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아들딸들인 우리 인민만이 간직한 불멸의 넋이다.

명줄을 지키려는 인민의 힘보다 강한것은 없다. 큰물은 학교와 마을, 철길과 도로는 파괴할수 있어도 이 신념만은 꺾지 못하였다.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다. 원쑤들은 얼마나 악랄하게 발악하는가. 《우려》나 《동정》도 아니였고 그 어떤 《원조》는 더욱 아니였다. 정시에 곧잘 외우던 《협조》와 《인도주의》의 탈바가지마저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늘도 치를 떨 만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믿음을 허물어보려고, 운명의 손길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악담으로 우리의 정의로운 성전을 모독하며 비렬하고 너절한 음모를 입삼았다. 그러나 어림없다. 북부전선의 거세찬 숨결을 보라.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함북의 피해지역 어디서나 제일먼저 눈에 띄는 이 글발,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민심의 밑뿌리이고 북부전선의 억센 기상이며 나날이 백배해지는 천만군민의 신념의 폭발이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가장 큰 승리는 우리의 일심단결이 천배, 만배로 다져진것이며 재난속에서 당과 인민이 더 크고 더 억센 하나가 되여 세기의 기적을 창조하는 오늘의 사변이야말로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만이 펼칠수 있는 력사의 기적, 두만강의 새 전설이다.

* *

천만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북부전선은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승리와 번영에로 노도쳐나아가는 우리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화폭이며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이다.

바로 여기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특대사변들로 가득한 2016년이 빛나는 승리로 장식될것이다.

조국의 북변땅에 또다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뢰뢰성처럼 터져오를 그날을 향하여 천만군민모두가 전선행렬차에 몸과 마음을 싣자.

인민군군인들이여, 당은 그대들을 피해복구전선의 제일선참호에 세워주었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는 길에 산악도 격랑도 단숨에 넘고 헤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으로 북부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자!

전체 돌격대원들이여, 두고온 창조의 전역에서 발휘하였던 그 투지, 그 열정, 그 기백으로 북부전선에 자기의 이름을 위훈으로 새기자!

온 나라 인민이여, 북부전선은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이다.

한줌의 세멘트, 한토막의 강재라도 증산하고 한방울의 연유라도 절약하여 전선으로 보내주자. 어디서나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여 결심하면 하는 조선의 본때를 만천하에 떨치자.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시련속에서 백배해진 강용한 힘과 기상으로 조국이여, 더 힘차게 앞으로!

백 룡, 승 철 전

민족교육의 화원은 영원히 만발할것입니다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재일동포사회에서 중등교육이 실시된 때로부터 어언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국해방의 환희와 더불어 시작된 재일조선인운동의 성스러운 이름과도 같고 모진 시련과 광풍을 이겨내며 세계에 자랑떨친 승리의 력사와도 같은 우리의 민족교육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 70년사를 더듬어보느라니 해빛을 주고 자양분을 주시어 우리 민족교육을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민족교육사업과 더불어 흘러온 40여년의 나날에 저자신이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생명수로 억세게 뿌리내리고 애족애국으로 그 줄기가 튼튼한 우리 민족교육의 화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영원히 만발할것임을 후세들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주체적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우리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군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을 한없는 기쁨속에 맞이한 1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고 공부를 시키고싶었던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에 국어강습소를 내왔습니다.

해방후 동포들의 지향을 담아 재일조선인초등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1946년 10월 5일에는 도쿄조선중학교의 창립으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의 실시를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고급학교의 병설로 중등교육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12월 13일 친히 강령적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1948년 12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재일조선아동들을 우리 말과 글로 교육하며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주독립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나갈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경축단성원들은 물론 우리 재일동포들모두가 민족교육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민족교육사업은 네외반동들의 말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난관을 겪게 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에 따라 1955년 5월 25일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곧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특히 우리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정속에 결성이듬해인 1956년 4월 10일에 조선대학교를 창립함으로써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갖추고 민족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시 조국의 정세는 매우 복잡했고 허리띠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을 해야 했던 나라의 경제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푼의 돈이 귀하였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세계재정금융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예산항목을 내오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하해같은 은덕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소식이 《조선민보》에 실린 날 당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장선생이 운동장에 모인 2 000명의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1억 2 000여만¥의 막대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웨치자 끝고있던 동포들이 일시에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며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격한한것처럼 그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사랑의 생명수였으며 그 생명수가 있어 우리 민족교육의 뿌리는 더욱 억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총련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우리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1973년 8월에 밝혀주신 《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민족교육사업의 강령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주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교편물들과 교구비품, 민족악기를 비롯한 수많은 선물들도 보내주시고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국을 방문한 우리 교육일군들과 동포학생들을 따뜻이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

총련에서 민족교육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며 민족교육사업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도록 하는 사업이며 민족적애국운동을 더 잘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해주시고 우리 동포학생들의 공연을 보아주실 때면 학생소년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고 하시면서 일본땅에서 조선민족의 넋을 지켜가고있는것은 총련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그리도 만족해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억세게 지켜주시는 그 고마운 품이 있어 총련과 우리 동포들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외국인학교법안》을 일곱번이나 폐안으로 몰아넣고 모든 학교들의 학교법인인가를 획득하는 자랑찬 성과도 거둘수 있었으며 바람세찬 이역에서 민족교육의 화원을 아름답게 꽃피울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우리 총련에 대해 세상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3년 7월 로므니아에서 세계교직원조합련맹 제10차대회가 진행되던 나날 대음악무용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와 대집단체조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찍은 영화를 본 외국의 대표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 재일본조선인교직원대표를 찾아와 《당신들의 조직이 한 나라도 감히 해내지 못하고있는 일을 하고있다.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총련의 민족교육은 세계적인 모범이고 본보기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교육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그 자랑스러운 면모를 내외에 더욱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990년대초에 독립국가협동체조선통일촉진위원회(략칭 《아쏘크》) 대표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우리 학교들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예술공연도 관람하면서 교육수준도 높고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밝고 씩씩하다고, 총련이 하는 민족교육은 세계적인 본보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

불러볼수록 가슴뿌듯해지고 한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드는 그 고귀한 부름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지니게 된 우리 재일동포들의 무한한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해외교포교육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그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대를 두고 지켜가야 할 고귀한 애국유산을 남겨주신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어버이이십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언제인가 일본을 돌아본 아메리카주의 한 정치인은 일본사회풍조를 두고 타민족을 동화시키는 《독바람》이라고 평한바가 있었다.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와 질시가 그토록 지독한 일본땅에서 우리 민족교육이 승승장구해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친어버이사랑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4년 10월에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겨레가 천만뜻밖에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던 때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야 했던 그처럼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함께 우리 총련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시며 깊이 마음쓰실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일군들에게 총련에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은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나갈 총련일군들과 동포군중핵심을 키워내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총련의 존망과 애국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에 편승한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광풍이 사납게 불어칠 때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서의 민족교육의 지위를 보다 명백히 밝혀주시고 민족교육사업을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의 출발점으로 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날의 가르치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사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웅심깊은 사랑과 눈물겨운 헌신으로 그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일군들에게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꼭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 사랑속에 와탕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았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우리모두는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으신 마음으로 민족교육을 생각하시고 새 세대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장군님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할 때 조국의 형편은 얼마나 어려웠고 정세도 얼마나 준엄했습니까.

하지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고 민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일수 있게 조국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도록 해주시였으며 우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친히 만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사랑속에서 저 한사람만이 아닌 수많은 교육일군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공화국로력영웅으로, 학위학직소유자로, 인민교원, 공훈교원으로 자라나 민족교육의 교단을 억세게 지켜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본반동들이 총련의 민족교육을 탄압하려고 책동할 때마다 그것을 짓무셔버리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해주시고 조국의 강력한 보호로 우리 총련과 동포들의 투쟁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적극 지지성원해나서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일본당국이 우리 민족교육을 말살하자고 그렇게도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없애기는 고사하고 민족교육이 날을 따라 승승장구해온것은 바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있었기때문입니다.

70년의 장구한 기간을 통하여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은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주체성과 민족성을 기본으로 현대과학지식을 계통적으로 배워줌으로써 후대들을 지력체를 겸비한 민족인재로 육성하는 훌륭한 교육내용과 교양방법을 갖춘 세계에 자랑할만 한 교육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민족교육의 가장 큰 공적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졸업생들을 내보내여 민족의 대, 애국위업의 대를 확고히 담보한것입니다.

또한 민족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동포사회를 단합시키고 총련조직을 강화하며 애족애국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였습니다.

2006년 10월 1일에 진행된 중등교육실시 60돐기념 재일동포대축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4.24교육투쟁의 넋이 새겨져있고 우리 재일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경끼지방의 중심지에서 《자랑하고 빛내이자! 우리 교육》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대축전은 3만 2 000여명의 동포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비내리는 무대에서 5 000명의 학생들이 빛나는 눈동자와 밝은 웃음, 훌륭한 모습으로 진행한 노래, 무용, 기악공연들과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래부르는 천진란만한 모습은 참가자들모두의 커다란 감동을 자아냈으며 이러한 공연은 총련과 우리 학교만이 펼칠수 있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축전을 통하여 우리들은 민족교육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을 세기를 이어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여주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삶의 은인이십니다.

창창한 미래

오늘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망해책동속에서도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이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이 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지난해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접했을 때 정말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구절구절마다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되새겨볼수록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하기에 한해가 다 저무는 지난해말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등교육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2016년 새해 축전에서도 새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 력사적진군의 해라고 하시면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해주시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립 60돐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60년의 자랑찬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해주시고 대학교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우리들은 민족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천만근의 무게로 받아안게 되였으며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워내야 할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민족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입니까.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우리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4돐을 맞으며 2억 1 880만¥의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보내주시였습니다.

잊지 못할 1957년에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59돐을 헤아리는 오늘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모두 162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77억 8 799만 390¥의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씩씩하게 자라나는 재일조선학생들을 대견히 여기시며 해마다 꼭꼭 조국을 방문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동포학생들은 조국의 설맞이공연무대를 특색있게 장식하며 자기들의 긍지와 자랑을 마음껏 노래할수 있었고 여름철방문의 나날도 의의깊게 보낼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속에서 우리 민족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오늘 애족애국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섰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총련의 애국위업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우심한 조건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 새 세대들을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바쳐가고 계십니다.

지난 8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대회장에서 대표단단장을 만나주시고 자신께서는 재일조선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총련의 새 세대들이 애국애족의 전통을 이어 잘 싸워주기 바란다고 희상의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대회가 끝난 후 열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기념촬영장소에서 또다시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을 뜨겁게 포옹해주시고 대표단성원들모두와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은 우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태양의 얼과 정으로 안아주시고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그리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심원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받아안았습니다.

그 사랑에는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라난 총련의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따르며 만난을 헤쳐온 전세대들처럼 혁명의 바통, 애국의 제주봉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가 어려있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언제나 재일조선학생들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우리 총련은 중등교육실시 70돐이 되는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전조직, 전동포들이 떨쳐 일어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초석을 억척으로 다져나가는 우리 민족교육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하기에 저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민족교육의 70년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우리 민족교육의 화원은 영원히 만발할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필자는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16》 폐막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16》이 폐막되였다.

국가정보화국의 주최로 열린 전람회에서는 핵심기초기술의 하나인 정보기술분야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나라의 정보화수준을 세계적인 높이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수많은 성과자료들이 소개되였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지능화, 정보화, 수자화, 자동화, 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할수 있는 통합생산 및 조종체계와 경영정보체계들, 유연생산체계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람들과 교육지원프로그람들, 정보통신수단들, 첨단기술을 도입한 콤퓨터와 텔레비죤 등 전자제품들이 참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전람회기간 새 제품발표회, 경험토론회 등을 통하여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이 널리 소개되고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폐막식이 7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로두철동지와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출품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아침콤퓨터합영회사,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이 2016년 정보화모범단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였으며 이 단위들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10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평가되였다.

모범적인 단위들에 증서와 메달, 우승기 등이 수여되였다.

김기남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수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정보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며 정보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데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참가자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속적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참가자들

과학기술전당 참관

지속적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7일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과학기술전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이 21세기 주체적진측예술의 상징으로,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응용과학기술관, 어린이꿈관, 전자열람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이밖에 손님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주체사상탑,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참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및 회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및 회원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며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그들은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 키스 펜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유서깊은 곳이다.

이곳에 오면 김일성주석에 대한 흠모심이 더욱 북받쳐오르군 한다.

그이께서는 이 수수한 초가집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여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만경대를 방문하는 세계인민들모두가 그이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에 대하여 한결같이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일가분들도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애국자들이시였다.

정녕 만경대고향집은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 혁명교양의 거점이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 김옥화는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인민모두가 보람차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민족제생의 은인,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이의 령도가 위대하여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막강한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손님들은 이밖에 국가선물관,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글린 포드 영국레이버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이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아이들의 궁전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또한 그는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영국레이버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참관

영국레이버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

여러곳 참관

존경받는 인민보안원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에 가면 탄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민보안원이 있다. 그가 바로 은산군인민보안부 아래탄위 인민보안원 김경일동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긴 그는 지난 여러해동안 석탄생산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탄부들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그들의 생산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는 본신 혁명과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안해와 함께 기른 집짐승들을 해마다 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었으며 탄부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어기고 적극 도와나서군 하였다.

2년전 갱에서 일하는 한 탄부가 결혼식을 할 때에도 김경일동무는 그를 위해 결혼상도 차려주었으며 그의 안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보약재와 애기옷도 마련해주었고 돌생일에는 축하도 해주면서 성의를 다하여 탄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탄광의 한 종업원이 심하게 앓을 때에도 김경일동무는 닭곰과 보약재를 안겨주면서 그가 하루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가 지금까지 탄부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바쳐온 나날에 남모르게 걸은 길이 그 얼마인지 사람들은 다는 모른다.

하기에 탄광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그를 찾군 한다.

탄광종업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김경일동무를 대할 때마다 탄부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욱 깊이 새겨안으며 석탄생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군 한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스위스정부가 긴급협조 결정

함북도 북부지역이 큰물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스위스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긴급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씨야에 갔던 중앙재판소대표단 귀국

리명남무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대표단이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된 국제법률연단에 참가하고 7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성남 중앙재판소 무소장과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제13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계속된다.

10월 9일(일요일) 오전 릉라인민체육공원 지상호케이장에서는 배불체육단과 와우도체육단사이 녀자선수들의 지상호케이 성인급경기가 진행된다.

평양에서 11일부터 예술체조 1급경기가, 12일부터 테스링, 록상성인급경기들이 시작된다. 기계체조, 물에뛰여들기, 사격 1급경기들은 13일부터 벌어지며 배구 1, 2, 3급경기들은 14일부터, 락하산 성인급경기는 15일부터 있게 된다. 프로권투 성인급경기는 13일부터 남포에서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대표
유엔총회 제71차회의 1위원회에서 연설

우리 나라 대표가 6일 유엔총회 제71차회의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전)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핵무기가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지향이고 요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군축 특히 핵군축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완전철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핵군축이 실현되느냐 못되느냐 하는것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렬강들의 정치적결단과 실천적의지에 달려있다.

최근년간 핵보유국들은 핵무기고의 량적축감에 소극적인 반면에 질적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인 미국은 앞으로 30년간 1조US$에 달하는 천문학적자금을 탕진하여 전체 핵무기고를 현대화할데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지금도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제창하고있지만 이것은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위선이며 핵독점전략, 세계제패전략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미국의 핵무기현대화책동은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은 물론 인류의 생존자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우리 대표단은 본위원회가 군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핵군축실현을 위한 방도적문제를 론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요한 군축문제론의에 적극 참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군축문제론의에서 진전이 없는것은 핵군축과 전파방지의 선후차를 둘러싼 론쟁이 지속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실질적인 핵위협은 핵전파에서 산생되는것이 아니라 발사태세에 있는 핵무기로부터 초래되고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는것은 핵무기가 지배와 간섭을 위한 공갈의 수단으로 공공연히 리용되고있는것이다. 가장 발전된 핵무기를 소유한 렬강은 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한 핵공격계획을 작성하고 핵전쟁연습을 부단히 벌리면서 핵위협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이다.

전세계가 커다란 불안속에 주시하고있는 가운데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임의의 순간에 핵과 핵, 불과 불이 부딪쳐 폭발할수 있는 사상 최악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올해 남조선에서는 수십만의 병력과 전략핵타격수단들, 특수무력의 참가하에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의 지도부에 대한 《참수》와 《수도점령》을 목표로 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여러차례 벌어졌다.

미국은 최근에는 핵전략폭격기 《B-1B》를 완전무장한 상태로 군사분계선상공을 비행시키는 한편 순항미싸일로 우리 최고수뇌부청사와 핵시설, 전략로케트기지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공식결정한데 이어 매일과 같이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에 우리가 핵억제력으로 맞설 전략적결단을 내린것은 자주권과 생존권수호를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절대불변의 립장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사회는 유독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에 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제멋대로 정의하고 그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핵시험을 비롯한 무기시험이나 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정의는 유엔헌장에도 그 어느 국제법조항에도 없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우리 나라가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하기 썩 전부터 진행된 2 000여차례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때마다 안보리사회가 가만있지 말았어야 했을것이다.

한편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하여 명백히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사회는 철저히 외면하고있다.

정치적목적에 따라 유엔헌장을 롱가한 월권행위, 이것이 바로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의 본질이다.

존엄있는 유엔성원국이라면 응당 대조선《제재결의》에 반영된 안보리사회의 적법성과 도덕성여부에 주의를 돌리고 분별있게 판단을 해야 할것이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은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연습이나 무력사용 및 위협을 유엔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침략행위로 반대규탄하였다.

그리고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이 타당한 법률적근거와 공정성, 정의를 무시한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평화적목적의 우주개발과 리용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반대배격하였다.

이번 유엔총회 제71차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집단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유엔성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수십개 나라들이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전대미문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반대배격한것으로 된다.

대표는 지난 60여년간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항시적으로 이고 살아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간절한 소망이고 념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소중한 평화는 그 누가 마련해주거나 그 무엇을 팔아서 살수 있는것이 아니며 오직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자기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될수 있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최고리익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로선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이미 공개한바와 같이 우리는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것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비핵국가들과 세계 여러 지역들에 창설되여있는 비핵지대들에는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우주의 평화적리용은 모든 나라들의 합법적이고 빼앗길수 없는 자주적권리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케트를 확고히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대표는 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우주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우주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갈것이며 10대우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적규정과 관례에 부합되게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매국역적들의 궁상스러운 비럭질

날로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에 혼비백산한 괴뢰패당이 외세라면 상대가 누구이든 가림없이 가랭이를 부여잡고 《대북압박공조》를 구걸하기에 여념이 없다.

얼마전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의 국회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추가제재》를 비롯한 《단합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핵화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다.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 역시 어느 한 나라의 외교당국자에게 《대북압박공조》에 대한 지지를 청탁하였다. 역도는 이어 서울에서 열린 남조선일본《축제한마당》이라는 광대극에 나타나 우리에 대해서는 《북의 핵시험》이니, 《위협》이니 하고 마구 걸고들고 일본상전에게는 《소통과 대화》가 잘되고있다고 아양을 떨면서 《북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비럭질하였다.

그야말로 청와대의 늙다리암캐로부터 그밑의 졸개들까지 《대북압박공조》구걸놀음에 괴뢰보수패당이 총발동되여 정신없이 짖어대고있다.

괴뢰패당의 망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앞장에서 피눈이 되여 날뛰다가 돌아설래야 돌아설수도 없고 더 나갈래야 나갈수도 없는 막다른 처지에 빠진 가련한 역적무리의 최후발악이 아닐수 없다.

구멍을 봐가며 말뚝을 깎는다는데 대세도 모르고 무작정 상전의 장단에 춤을 추며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박근혜패당의 꼴불은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어떻게 하나 고립압살하려는것이 괴뢰들의 흉악한 속심이다. 바로 그래서 수치와 창피도 모르고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외세를 찾아다니며 마치 저들이 《북핵위협》의 피해자인듯이 동정을 구걸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화를 간청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짓이다.

우리는 외세를 할애비처럼 섬기며 상전들에게 반공화국대결공조를 청탁하다가 닭쫓던 개 울 쳐다보는 꼴이 되군 하였던 선임자들의 망신스러운 전례에서 교훈을 찾을것을 괴뢰들에게 여러차례 충고하였다.

박근혜패당이 초보적인 식견과 정세판단력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더우기 저들이 《북핵포기》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도 그것을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것쯤은 알아야 할것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는 괴뢰패당이 외세를 끼고 벌리는 반공화국제재, 압박소동에 끔쩍도 하지 않는다. 전화위복의 기적으로 난관을 박차고 최악의 역경일수록 더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런데 박근혜패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외세의 옷섶에 매달려 《대북압박공조》를 애걸하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있다. 존엄과 주대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외세에 빌붙으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구걸과 청탁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이런 쓸개빠진 매국노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치욕을 당하고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극도로 고조되고있는것이다.

지금 대내외정책의 총파산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빠져든 박근혜패당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동족대결책동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앞날이 없는자들의 마지막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한갖 개울창의 미꾸라지보다도 못한 괴뢰들따위가 제아무리 발버둥질치며 외세에 《대북압박공조》를 청탁하고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여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발걸음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민족을 망신시키는 궁상스러운 비럭질을 작작 하라는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허 영 민

일본수상이 사죄할것을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시민들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모임》 관계자들이 9월 28일 일본 도꾜에 있는 참의원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일본수상명의의 사죄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날 단체가 일본정부에 전달한 요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사죄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사죄편지가 있어야 사죄가 표명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 《동맹》인가

얼마전 박근혜역도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고위장성들과 서울주재 미국대사를 청와대에 청해들여 오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미국과의 《동맹》을 극구 찬미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 6 3년을 하루 앞둔 이날 역도는 미군을 《특별한 친구》라고 하면서 남조선미국《동맹》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추어올렸는가 하면 《북을 억제할수 있는 가장 효률적인 수단》은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한 《련합방위태세》라느니,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나갈것》이라느니 하는 넉두리질을 해댔다. 그야말로 천하역적 박근혜만이 해댈수 있는 친미사대, 동족대결망발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도대체 남조선미국《동맹》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기에 그처럼 극성인가 하는것이다.

사실 남조선미국《동맹》은 말이 동맹이지 파헤쳐놓고 보면 상전과 주구사이의 더러운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목적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 있다. 남조선미국《동맹》이야말로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남조선인민들을 미국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검은 마수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남조선사회전반을 철저히 미국화하여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미국상전과 그의 하수인이 되여서라도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괴뢰역적패당의 추악한 공모결탁의 산물이 다름아닌 남조선미국《동맹》인것이다. 남조선미국《동맹》이 가장 굴욕적인 《동맹》, 전쟁《동맹》으로 비난받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남조선미국《동맹》이 지금까지 남조선에 가져다준것은 무엇인가.

남조선미국《동맹》의 조작으로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전쟁화약고로 전락되였고 북침을 가상한 미국과 괴뢰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과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상전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괴뢰당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전쟁장비구입놀음을 벌리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막대한 유지비를 섬겨바치면서 탕진한 인민들의 혈세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어디 그뿐인가. 남조선에서 제세상처럼 날치며 살인, 강도, 략탈, 강간 등 온갖 치떨리는 범죄적만행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해온 미제침략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쳐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미국과의 《동맹》을 마치 남조선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여기면서 《번영을 가져온 동맹》이니 뭐니 하는 얼빠진 수작을 늘어놓고있다. 세상에 민족적자존심이란 표쪽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이런 천하의 매국노, 인간추물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과의 《동맹》이 없으면 살수 없는것처럼 여기는자들이 숭미사대관념에 푹 빠져있는 남조선괴뢰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새누리당》의 전 대표와 같이 그 무슨 《존경과 감사의 표시》니 뭐니 하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을 등에 업고 해괴망측하게 놀아대는 얼간망둥이들이 나오는가 하면 서울에 둥지를 튼 미국대사를 징벌한 의로운 주민에게 1 2년의 징역형을 들씌우는 반민족적폭거까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면 미저리가 된다고 하였다. 숭미사대, 남조선미국《동맹》우상화라는 독소에 질식되여 민족의 얼이 송두리채 사라진 정신적불구자, 도덕적기형아들이 하수도의 오물처럼 그칠새없이 넘쳐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비극적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친미사대에 환장한 박근혜패당의 망동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총체적붕괴》, 《망해가는 징조》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겠는가.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기 위해 기만적인 《내선일체》간판을 내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런데 오늘은 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넋을 빼앗고 민족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이며 남조선에 온갖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주는 최대의 화근이다.

가소로운것은 박근혜패당이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한 그 무슨 《련합방위태세》니 뭐니 하며 감히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의 핵보복타격을 막아보려고 발광하고있는 사실이다.

충고하건대 괴뢰들은 우리가 이미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을 통과하였으며 그로 하여 상전인 미국도 대책이 없이 골머리를 앓고있다는것쯤은 알고 헤덤벼야 한다.

박근혜패당이 남조선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바싹 매여달릴수록 상전의 오만성과 강도적요구는 더욱 로골화될것이며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식민지주구, 하수인의 치욕과 오명뿐이다.

《싸드》배치소동에 주변나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있는 현실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미국과의 《동맹》은 남조선에 국제적고립과 긴장격화로 인한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고 종당에는 무서운 핵참화까지 입게될것이다.

남조선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나야 하며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미국과의 《동맹》을 철페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조선반도와 그를 둘러싼 주변세력들의 력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있는 현시점에서 괴뢰당국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주어진 숙명이며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목표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온 민족은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환장이 되어 날뛰는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조 남 수

기지반환문제를 통해 본 역적배들의 정체

《미군은 이 땅에 있을 자리가 없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민족적불행과 재난의 화근을 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목소리이다.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당한 길이다. 하기에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누구를 불문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력대 괴뢰집권자들은 미제침략군을 할애비처럼 섬기면서 그에 의거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인민들을 짓밟으며 민족을 반역해왔다. 특히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미국상전에게 아부굴종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짱그리 팔아먹었다.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친미사대적본성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기지반환문제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현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괴뢰당국과 진행한 협상에 의해 이미 몇년전에 미군기지들의 이전과 반환을 끝내기로 되여있다. 하지만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은 부당한 구실을 붙여 미군기지들의 이전과 반환을 계속 지연시켜 남녘민심의 분노를 고조시키고있다. 지어 미국은 괴뢰당국에 엄청난 액수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할것을 강박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역적패당이 미국의 이런 날강도적인 처사에 항변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추종하고있는것이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미군기지들의 이전과 반환이 추진되지 않고 결국 인민들이 당하는 재난은 더욱 커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제침략군은 서울 룡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지역들을 타고앉아 반세기이상이나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과 각종 범죄행위들을 감행하고있는가 하면 미군기지들에서 유독성물질들을 대량적으로 배출하여 기지주변의 토양과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고 생화학무기실험까지 비밀리에 다그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있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그에 대해 전혀 못 본척 하면서 민족적자존심과 리익을 심히 손상시키고있다. 괴뢰패당은 미제침략군의 온갖 횡포무도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항의하고 미군기지들을 반환할것을 요구할 대신 도리여 미국상전에게 새로운 군사기지들을 섬겨바치고있다.

괴뢰들이 막대한 인민혈세를 탕진하며 건설한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미제침략군의 해외침략을 위한것이다. 이 기지가 미제침략군의 항공모함이 정박할수 있도록 건설된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제주해군기지뿐이 아니다. 박근혜패당은 지금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따른 《대비》를 운운하며 경상북도 성주군에 미제침략군의 《싸드》를 배치할 기지를 새롭게 꾸리려 하고있다.

이것은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고 박근혜패당의 반역행위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해에 폭로된 미제침략군의 탄저균불법반입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은 남조선을 생화학무기실험지대로 만들고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도 해마다 늘어나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있다.

온 남조선땅을 미국의 침략전초기지로 내맡기고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짱그리 팔아먹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이 체질화된 극악한 매국역적들의 용납 못할 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만약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남조선의 《싸드》기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기지들은 우리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광해도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타격을 막을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기지들이 계속 남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미제침략군과 그 기지들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재앙의 화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전쟁의 재난을 막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미제침략군기지들의 이전이 아니라 완전철수, 완전페쇄를 주장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며 대중적인 항의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은 굴함없는 투쟁으로 외세와 매국노들에게 빼앗긴 삶의 터전을 되찾고 불행의 화근을 털어버려야 하며 미국의 더러운 주구노릇을 하며 민족을 반역하는 가증스러운 박근혜역적패당을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것이다.

김 철 남

남조선 기업단체들
100일롱성에 돌입

남조선의 남북경제협력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3일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북남관계개선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여 100일롱성에 들어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단체들은 금강산관광객사건, 《천안》호사건 등을 구실로 취해진 반공화국제재조치로 하여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마저 페쇄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차단되였다고 밝혔다. 그로 하여 피해를 입은 남조선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단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은 평화의 씨앗이자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우리스스로가 길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련대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생존권을 이루어낼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10.4선언발표 9돐을 계기로 생존권보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집회를 가지는 등 100일롱성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00일롱성투쟁의 하나로 4일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 광화문일대에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단체는 남북경제협력에 참가하였던 많은 업체들이 2010년 《5.24조치》이후 《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여 기업활동이 중지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업체들에 입힌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하고 대책을 세울 때까지 철야롱성투쟁을 이어갈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적》포기현상은 왜 늘어나는가

이 땅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난지도 어언 7 0여년세월이 흘렀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설움을 강요당하던 그 시절 우리 인민은 피눈물속에 정든 고향땅을 떠나 이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 그 수난이 되풀이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1 0년간 남조선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로 떠나간 사람들의 수는 무려 2 1만여명에 달하였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 그 수는 2만 5천 3백여명으로서 1 0년간 최고수치를 기록하고있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로 나가고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이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역통치에 의해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동족대결의 란무장으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남조선 각계도 《국적》포기현상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는것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정치무능아 박근혜의 치욕스러운 반역통치가 안아온 필연적귀결이라고 폭로하고있다.

사실상 박근혜역도가 청와대안방에 틀고앉아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준것은 불행과 재난밖에 없다.

박근혜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수백가지의 각종 민생공약들을 광고하며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민심을 유혹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다. 하지만 경제문외한인 역도가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떠들며 들고나온 각종 로동악법들과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완전한 빈사상태에 처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박근혜역도가 추진한 경제정책들은 《서민들의 주머니털어내기》, 《로동자죽이기》, 《청년죽이기》정책들로서 남조선을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말살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재 남조선의 실업자수는 박근혜역도의 집권초기보다 무려 2 3%나 늘어난 4 5 0여만명, 반실업자는 1 000만명에 이르고있으며 청년실업률은 3 4. 2%로서 사상 최악이다. 남조선에서는 무려 8 5 0여만세대가 셋방, 쪽방, 비닐집, 판자집, 집합 등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물가상승이 계속되여 인민들의 생활난이 가중되는 속에 절대빈곤층은 5 7 0여만명에 달하고 로인빈곤률은 4 8. 6%에 이르러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역도가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위기》를 몰아왔다고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박근혜역도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통땅 로동자들에게 넘겨씌우면서 생존권을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해 나섰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이던 백남기농민이 끝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런 몸서리치는 인간생지옥에서 어떻게 인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히 살아갈수 있겠는가.

박근혜패당이 들씌우는 불행과 고통에 못이겨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에로 떠나가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실이다.

더우기 박근혜역적패당이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므로써 온 남조선땅에는 핵전쟁의 공포가 휩쓸고있다.

괴뢰역도가 그 무슨 《북핵위협》을 구실로 《응징》이니 뭐니 하는 폭언을 마구 줴치며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있다.

그러니 남조선에서 늘어나고있는것이 자살과 범죄, 《국적》포기밖에 더 있겠는가.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해방전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보짐을 이고지고 정처없이 이국땅으로 떠나가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에서 《망한민국》, 《개탄민국》, 《불지옥》이라는 저주와 울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겠는가.

남조선의 모든것을 쑥밭처놓고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아 극도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역도는 그 무슨 《일자리창출》이니, 《민생》이니 하며 인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듯이 냄새를 피우고있다. 한편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떠벌이며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저들의 매국적망동을 합리화하고있다. 하지만 청와대마녀가 가소롭게도 《민생》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나발질하는것은 고양이 쥐생각하는 격이다.

괴뢰역도의 추태는 인민들을 기만우롱하고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정치적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대중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을 위한 부자정치, 몸서리치는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폭압정치,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전쟁공포정치에 매달리는 시정배, 인간추물이 청와대안방에 계속 틀고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가는 현상은 언제 가도 없어지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날로 더욱 늘어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극악무도한 청와대마녀를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려 준엄한 징벌을 가하는것이다.

장 임 향

ㄱ-61162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